



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 제안회의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가 광주 북구와 주민이 함께 실행할 공공의제 발굴을 위한 제안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사)광주북구마을자치도시재생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1일 광주 북구 용봉동 북구청 3층 대회의실에서 공공의제 제안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북구 주민이 제안하고 북구가 함께 계획·실행해 해결할 수 있는 공공의제를 발굴하고자 관내 27개 동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120여명의 주민들이 참여했다. 이날 발굴된 공공의제는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온라인 사전 투표와 오는 9월26일 북구민의 날 주민연합총회 현장 투표를 통해 북구 전 주민이 함께 실천할 수 있는 의제를 최종 선정해 발표될 예정이다.

센터 관계자는 “이번 제안회의는 다양한 주민 공동체가 모여 주민 모두가 실천할 수 있는 공공 의제를 발굴해 참여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전남도, 중국 장시성 청소년 초청 교류행사

전남도는 중국 장시성 화동교통대학교 대학생 30명을 초청, 15일까지 8일간 전남 역사·문화 탐방 및 청소년 교류활동 등 국제교류를 진행한다. (사진)

장시성과의 교류는 2009년부터 시작됐으며, 지금까지 총 21회에 걸쳐 963명이 참여했다. 지난해에는 전남지역 대학생이 중국을 방문했으며, 올해는 장시성 대학생들이 전남을 찾았다. 지난 9일 열린 환영식에서는 장시성 교류단과 전남 대학생 등 총 60여 명이 참석해 전남도 홍보영상 시청, 교류패와 선물 교환, 한·중 청소년 장기자랑을 진행하며 상호 소통하고 공감했다. 이어 두 나라 교류단은 9일과 10일 여수 루지와 아쿠아리움, 순천 낙안읍성과 순천만 국가정원을, 11일과 12일에는 국립나주박물관, 나주 염색박물관, 담양 죽녹원 등을 방문했다. 닭갈국수, 떡갈비, 나주곰팡 등 다양한 한식을 통해 남도의 멋과 맛을 체험하며, 전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오지현 기자**



광주그린카진흥원, 법인 명칭 공모전 시상식

(재)광주그린카진흥원은 지난 12일 ‘법인 명칭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

14일 광주그린카진흥원에 따르면 이번 공모전은 글로벌 자동차산업이 미래 모빌리티 패러다임으로 급변함에 따라 미래자동차 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진행됐다.

공모전 접수된 작품은 총 44건, 관내외 관련 기관 및 지역 대학 등 다양한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심사위원회가 검토해 최종 △최우수상(상금 광주상생카드 100만원) 1건 △우수상(상금 광주상생카드 50만원) 2건 총 3건을 수상작품으로 선정했다.

이번에 선정된 수상작에 대해서는 향후 이사회 및 산업통상자원부 검토를 거친 후, 최종 공식 명칭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김성진 광주그린카진흥원장은 “많은 참여에 감사하며, 미래모빌리티 산업을 선도하는 기관으로 거듭나겠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소진공,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회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박성호 이사장은 지난 12일 대전 공단 본부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 이행 관련 전국 단위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

14일 소진공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지난 3일 정부에서 발표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정책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전국의 7개 지역본부와 77개 지역센터의 보직자를 대상으로 종합 대책을 공유하고 사전 준비 사항에 대해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진공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과 관련해 정책자금 분할 상환 및 대환대출 지원 대상 확대, 스마트 기술·전기료 지원, 온누리 상품권 가맹점 확대 및 △경영부담완화, 디지털 전통시장 확산, 유망소비재 수출 지원 밀착관리 △성장촉진·희망리턴 패키지 지원강화 △재기지 지원 등을 담당하고 있어 연계된 다양한 과제를 공유하고 함께 의견을 나눴다. **나다운 기자**



파라과이 소방대, 국립5·18민주묘지 참배

광주시소방안전본부는 광주소방학교에서 연수교육 중인 파라과이 소방대가 지난 13일 국립5·18민주묘지를 방문해 5월 영령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헌화·참배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파라과이 소방대 18명은 이날 국립묘지 합동 참배 후 5·18추모관을 방문해 교육영상을 시청하며 광주의 민주화 역사와 그 뜻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파비오 코다스 비알바 파라과이 의용소방대 부회장은 “지난 2018년부터 소방으로 시작한 광주와 인연은 무엇보다 특별하다”며 “소방안전 교류·협력을 넘어 인권·평화의 도시 광주의 민주정신을 함께 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소방안전본부에서는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글로벌 연수교육 사업을 지원받아 파라과이 소방대원 18명을 초청, 오는 20일까지 광주소방학교에서 각종 재난 대응과 구급역량 강화 등을 위한 연수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노병하 기자**



광주 북부경찰, 관내 교통안전 홍보활동

광주 북부경찰이 최근 연달아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방지하고자 관내 교통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사진)

14일 북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2일 연이어 발생하는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 통행방법에 대한 서한문을 관내 경로당 약 400여개소에 우편 발송하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다.

또한 여름철 배달 이륜차와 청소년 전동 킥보드 통행이 늘어나면서 난폭운전 등 사고 요인행위 집중 단속과 함께 배달업체 및 중·고등학교를 순회 방문하는 등 관내 교통안전 유지에 힘쓰고 있다.

북부경찰 관계자는 “최근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육을 전개하는 등 시민들의 안전확보를 위해 교통 경찰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준명 기자**



광주 서부경찰, 치안 종합성과 향상 회의 개최

광주 서부경찰은 지난 12일 치안 종합성과 향상 회의를 개최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이번 회의는 장명본 경찰서장 주재로 마련됐으며 각 실·과장 및 계·팀장, 성과 담당 직원 등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성과평가가 약 4개

월 가장 남은 시점에서 기능별 정량지표 달성도를 점검하고 정성평가에 대비하기 위한 추진사항을 논의했다.

장명본 광주 서부경찰서장은 “성과평가의 핵심인 정성평가를 위해 평가기관과의 소통 활성화를 통해 정성평가 대비에 하반기 역량을 집중해달라”고 당부했다. **정성아 기자**

지민 ‘뮤즈’ 순서대로 들어주세요… 사랑의 과정

글로벌 슈퍼 그룹 ‘방탄소년단’(BTS) 지민(사진)의 신보 멜로디가 베일을 벗었다.

14일 소속사 빅히트 뮤직에 따르면, 지민은 이날 0시 하이브 레이블즈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솔로 2집 ‘뮤즈(MUSE)’ 하이라이트 메들리 영상을 게재했다.

카세트 플레이어를 주요 콘셉트로 한 이번 영상의 시작은 ‘뮤즈’의 문을 여는 인트로 곡 ‘리버스(Rebirth)(Intro)’가 장식한다. 이 곡은 R&B와 가스펠을 기반으로 한 퓨전 장르다. 벅차오르는 연주가 특징이다.

다음에 자רח한 ‘인터루드 : 쇼타임(Interlude : Showtime)’은 3번 트랙과 연결되는 연주곡이다. 행진하면서 연주하는 ‘마칭밴드’ 사운드가 리스너들의 흥을 돋운다.

세 번째 트랙은 지난달 28일 선공개된 ‘스메랄도 가든 마칭 밴드(Smeraldo Garden Marching Band)(feat. 로꼬)’다. 빅밴드(대규모로 구성된 오케스트라) 사운드에 힙합 장르를 가미해 역동적인 느낌을 준다.

이어 미디엄 템포의 R&B 곡 ‘슬로우 댄스(Slow Dance)(feat. Sofia Carson)’를 만나볼 수 있다. 다섯 번



째에 위치한 ‘비 마인(Be Mine)’은 아프로비트(Afro-beat) 장르 곡이다. 앞선 수록곡들이 뜻깊은 분위기를 풍겼다면 이 곡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매혹적인 리듬이 특징이다.

타이틀곡 ‘후(Who)’의 비트는 섹시하고 당돌하다. 반면 메시지는 ‘진정한 사랑을 찾고 싶다’라는 순애보적 색채가 짙다. 멜로디와 함께 공개된 ‘후 이즈 마이 하트 웨이팅 포?’(Who is my heart waiting for?·나의 마음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라는 가사는 곡의 시작점이 되는 질문과 같다.

지민의 솔로 2집 ‘뮤즈’에 수록된 모든 곡들은 ‘사랑’을 주제로 한다. 빅히트 뮤직은 “트랙을 순서대로 들으면 사랑에 빠진 박참과 두근거림 그리고 사랑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기까지의 과정과 그 감정을 오롯이 느낄 수 있다”고 소개했다.

지민은 오는 19일 오후 1시 ‘뮤즈’ 전곡과 타이틀곡 ‘후’ 뮤직비디오를 전 세계 동시 공개한다. 신보 발매에 앞서 17일 타이틀곡 ‘후’의 뮤직비디오 티저를 오픈한다.

뉴시스

이효리 모녀 듀엣곡 나온다… 이상순 디렉팅

기타리스트 이상순이 아내인 가수 이효리와 장모 전기순 씨를 위해 디렉터로 나선다. (사진)

14일 오후 9시10분에 방송되는 JTBC ‘엄마, 단둘이 여행 갈래?’ 최종회는 이효리 모녀의 첫 듀엣곡 녹음 현장과 여행 비하인드로 꾸며진다.

이효리는 여행 중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던 엄마의 목소리에 “소녀같고, 너무 곱고, 아름다운 목소리”라 말하며 감탄했다. 여행을 마친 후 이효리는 엄마가 자장가로 불러주고 싶다며 차 안에서 함께 불렀던 ‘섬집 아기’를 프로그래밍의 정식 OST로 사용하기 위해 엄마를 녹음실로 초대한다.

이상순이 연주한 반주에 맞춰 모녀의 녹음이 진행됐다. 이효리는 녹음이 난생 처음인 엄마를 위해 차근차근 알려주며 내내 엄마의 옆자리를 지킨다. 녹



음을 마친 엄마는 “너만 있으면 다 만사형통”이라고 딸을 자랑스러워한다.

이번 스페셜 방송에서는 모녀 여행을 떠나기 전 ‘엄마를 사랑했던 마음’을 되찾고 싶었던 딸 이효리의 전 과정을 순차적으로 재조명한다.

이와 함께 종영을 아쉬워하는 시청자들을 위해 5박 6일 여행기를 담은 스냅 사진들과 이효리가 직접 그린 그림들을 만날 수 있는 특별 전시회도 21일까지 열린다. 티켓 수익 일부를 기부한다. 이효리 모녀 여행기를 담은 포토 에세이 단행본도 출간된다. **뉴시스**